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5월 1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30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권세로

저의 병을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복순 -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생활을 한 지 올해로 36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로가 되어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고 저는 권사로서 여성봉사연합회에 소속하여 만나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녀들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며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부와 저의 사랑하는 자녀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욕심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시편 73:28)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많은 일중에 가장 잘 한 일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일’이라고 한 어느 유명 인사의 자전적 고백에 저도 충심으로 공감함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체험한 신유의

은혜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2022년 5월에 저는 대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당회장 조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았을 때 늦게 발견한 상태여서 크게 상심하고 낙심할 뻔하였는데, 목사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투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6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아프고 힘들었지만 목사님과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12월에,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간의 50% 가량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4번의 항암치료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처럼 1년이 안 된 기간에 두 번 큰 수술을 받고 열 두 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체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 가족들이 신기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 있는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고 또 밤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틈틈이 만나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해가 또 바뀐 2024년 2월부터 허리에서 통증을 느꼈는데, 연로한 친정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계셔서 검진을 미루고 어머니를 간병하였습니다. 이곳 안산에서 어머니가 계신 춘천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몸이 힘들 때 주기도문과 성경말씀을 암송하면 다시 힘이 나서 열심히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후, 바로 정밀검사를 받고 5월에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애쓰는 가족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악한 병에서 꼭 완쾌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권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낮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예레미야 17:14) 아멘.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저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믿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파스한 손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많은 분들의 합심기도와 저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신유의 기도를 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기도해주신 교역자님들과 권사님들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역의 성도님들과 입원한 때마다 옆에서 힘든 간병을 해준 사랑하는 딸과 가족 모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과 시간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값지게 쓰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야고보서 5:15)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말라기 4:2)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당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서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11단원 : 교회)

(제49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 본문 : 마태복음 28:18-20

• 요절 :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

• 찬송 : 268장(새찬송가 505장), 277장(새찬송가 499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35)는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계속 해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은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들과 같지 않고 생명력이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마 7:28,29).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일 년간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일은 사도들이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힘을 쏟았는지를 보여 줍니다(행 11:25~26).

그리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충성된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13)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줌으로써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예배 시간의 설교를 비롯하여, 성경 강해, 평신도 성경공부,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2.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눅 4:43~44).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성경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1~5).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을지라도 교회는 복음 전파를 지속해야 합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방법 외에도 방송이나 신문, 전도지, 서적,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기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시도 쉬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3.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병을 고치시는 일을 병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마 4:23~24)는 말씀은 이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고 말씀하심으로 신유의 사역을 교회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고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교회는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고 상처 입은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심신이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 새 생명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